『신앙과 학문』. 25(2). 183-210.
https://doi.org/10.30806/fs.25.2.202006.183

한일의 거시경제 변화와 선교적 함의 고찰*

A Study on the Missionary Implications of Korea-Japan Macroeconomic Changes

이 선 복 (Seon-Bok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28 years of Korea-Japan macroeconomic statistics provided by the OECD from 1990 to 2017,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on Japanese missionary work. In Japan, Francisco Javier preached the gospel in 1549 and Protestant denominations were form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1859. However, the number of Protestants is now 550,000 which is 0.4 % of the population.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gap narrowed as Korea's GDP which was 8.9% of Japan in 1990, rose to 31.4% in 2017, and per capita income rose from 25.68% to 77.40%. In addition, the annual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was verified to be 1.16% for Japan, compared with a 5.19% rise for Korea during the survey period. It also suggested that th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narrowed from 22.6% to 82.1% for exports and from 29.6% to 71.2% for imports.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 the church approached the understanding of the uniqueness of Christianity in Japan, the understanding of church, worship method, and economic change, and suggested that the Japanese church and the pastor can cooperate on the basis of faith.

Key words : Korea, Japan, Macroeconomic, Statistical Data, Missionary Implications

* 2020년 05월 12일 접수, 06월 10일 최종수정, 06월 1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9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6일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일 경제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선교전략 변화 고찰'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서대학교(Dongseo University) 경영학부 교수,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7, sblee6@hanmail.ne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경제(economics)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 소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살림으로 확대한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일반적으로 GDP, 경제성장률, 수출입액, 실업률, 물가지수 등은 한 나라의 성과와 삶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Mankiw, 2015).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한 나라의 선교전략이나 기독교 복음 전도의 소재로 분석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통계자료를 28년에 거쳐 분석하고, 일본선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경제적 변화의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한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불행한 과거를 뒤풀이 하며 갈등관계를 가져왔다. 특별히 최근 1, 2년을 보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8년에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에 한국산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우대조치를 취소하였다. 양국의 갈등은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분야에 나쁜 영향을 미치었다. 일본은 1876년 메이지 시대에 서양문물의 개방과 근대화에 성공하여,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1945년 패전에도 불구하고 재건에 성공하여 세계 제2위 GDP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Japan as No.1'이란 표어의 의미처럼 일본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일본형 경영방식을 벤치마킹고자 하는 연구가 붐처럼 일어났다(사와이 沢井, 2016; 고미네 古峰, 2016).

그러나 돌이켜보면 일본은 적어도 기독교 복음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선진국이 아니었다. 1549년에 카톨릭 예수회 소속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복음을 전하고, 또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개신교(프로테스탄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 수가 1%미만으로 변함이 없다. 천황제를 기조로 한 일본 고유의 신도(神道)와 근대화 과정에 뿌리 내린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이 기독교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사와 澤, 1995). 2019년 현재 일본에는 1,656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KWMA, 2020). 해외 선교사 파송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2010년 이후 목회자가 없는 무목(無牧)교회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일본은 헤이세이(平成) 천황이 퇴임을 하고, 나루히토가 제126대 천황으로 즉위함으로 신레이와(令和)시대를 열었다. 일본은 헤이세이 원년인 1989년부터 버블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해, '잃어버린 10년과 20년(失われた10年と20年)'이란 표현이 상징하듯 장기간 경기침체와 불황을 계속하여 왔다(오가와 小川, 2009).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간의 어려움

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에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선포하고, 재정확대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일본 선교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통계자료를 비교 검증하고, 관련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는 데에 특징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인터넷 사이트 검색 외 OECD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일본 교회 및 현지 목회자와의 교류경험 등을 기초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경제경영, 기독교 경제관, 일본 기독교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은 OECD에서 제시하는 주요 거시경제 통계지표로 7개의 자료를 추출하여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8년에 걸쳐 한일 양국의 변화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일본선교의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와 교세 등을 검토 후, 3장의 결과를 종합하여 선교적 함의를 제시한다. 5장은 결론으로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년간 한국과 일본의 최근 경제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기독교 선교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그 선교적 함의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둘째, 일본 헤이세이 천황 재임기간 30년 중 28년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지 교류는 물론 다양한 문헌을 기초로 학술적 논문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반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준비나 전략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자는 2019년 8월에 포항에서 열린 제1회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Hesed Asia for Japan)'에 경제관련 주제로 참여하였으며, 한일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선교사 개인의 활동은 물론 양국 교회가 앞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가는데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

II. 선행연구

1. 일본 관련 경제경영 연구

1945년 패전이후 일본경제는 놀랍게 성장하였다. GHQ(연합군사령부) 체제하 재벌해체와 농지개혁 등 경제개혁이 단행되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군수 물자조달의 특수를 누리며 연평균 10%(1956-73,연평균 9.2%)의 고도성장을 시작하였고,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 시점에 세계 제2위 국민총생산(GNP) 국가로 올라섰다(시마 島, 2007).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1달러 360엔 하던 엔화는 1971년에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며 1달러 90엔대까지 가치가 상승

1) 제1회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Hesed Asia for Japan)'은 2019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포항기쁨의교회에서 2박3일간 진행되었으며, 15일저녁 화해의 순서를 가졌다.

하였다. 1989년을 피크로 일본경제 평균 주가지수는 38,915엔까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였다. 세계 관심이 일본에 집중하였다. 주식상호보유제도,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제, 기업별 노동조합, 장기적 거래관행, 메인뱅크 시스템 등 일본기업의 경영방식과 경제, 금융, 회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일본형 경영방식(Japanese style management)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였다(미야모토 宮本, 1995; 야마치 山地, 1994).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일본 경제와 관련해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유광(1990)은 에도시대 이후 일본형 경영의 기초를 이룬 일본 상인정신이 메이지 근대화과정으로 변화된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유광(2000)은 버블경제 붕괴 후 시작된 1992년의 주가 및 부동산 폭락과 3년간 제로성장, 98년 아시아경제위기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2001년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 실패에 따른 장기간의 경제침체 등을 들어 '잃어버린 10년과 일본의 교훈'으로 소개하였다. 김영래(1997)는 일본형 경영의 구조와 형성요인을 소개하고, 그 특징이 집단주의를 기초로 한 종신고용, 연공서열, 간반 생산시스템, 간접 금융우위의 메인뱅크(main bank)시스템, 주식 상호보유제도에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누리던 일본경제에 버블이 붕괴된 것을 시점으로, 송지영(1999)은 버블경제의 특징과 발생원인, 부실채권의 급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탄,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연구하였다. 강계삼(1982)과 신장철(2009)은 일본의 자본주의 확립에 이어 종신 고용제와 노사관계 안정이 생산성의 촉진과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검토하는 등, 일본적 경영 및 고용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 경영 회계와 관련해 고승희(2000)는 메이지시대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식 복식부기가 일본에 도입된 과정을 검토하고, 1873년에 최초 복식부기서로 출판된 후쿠자와 유키치의 장합지법(帳合之法)과 Allan Shand의 은행부기정법(銀行簿記精法)을 소개하였다. 최종서(2004)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과 일본의 회계개혁 형성요인을, 이선복(2010)은 IFRS(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 일본의 회계제도 전환과 모델의 패러다임 변화를 연구하였다[2]. 또 일본의 장인정신(もの作り)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특히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辛之助),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稲盛和夫), 혼다모터스의 혼다 소이치로(本田宗一郎)와 같은 CEO의 경영 철학과 기업가 정신 등을 배우고자 하는 자료와 영상도 발견된다.

2. 기독교 관련 경제경영 연구

기독교를 소재로 한 경제 관련은 다음 선행연구가 발견된다. 황의서(2014)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경제윤리 비교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해 전자는 완전하고 후자는 불완전함을 제시 후, 인간의 완전성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기본철학이

2) 위 연구는 일본회계제도의 특징을 1)戰前기(에도시대-1945):서양 복식부기도입, 근대일본회계모델 형성, 2) 戰後EHQ점령기(1946-1955):기업회계원칙 확립, 미국형 회계모델의 이식, 3) 고도 경제성장기(1955- 1989):일본형 경영탄생, 수정형 일본회계모델 정립, 4) 버블붕괴와 금융개혁기(1990-현재): IFRS 수렴의 형태로 분류, 회계모델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였다.

되나, 인간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아퀴나스는 국가간섭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세계관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김승욱(2010)은 기독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제시하며, 특히 한국경제성장의 초기 조건으로서 인적자본형성에 기독교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해서 크게 기여했음을 제시하였다. 황봉환(2015)은 저서『신학과 경제』를 통해, 성경적 관점에서 토지의 취득과 소유, 분배, 활용, 구약관점에서 차용과 부채, 잠언에 나타난 부의 가치와 활용, 이사야서와 아모스서에 나타난 경제정의와 윤리적 실천, 사회 양극화, 달란트 비유에서 본 신학적 경제윤리, 부자와 빈자의 구조적 현상과 윤리적 교훈, 초대교회의 재산헌납과 분배, 바울의 헌금과 신학적 원리, 야고보서에 나타난 부의 소유와 활용 등 다양하게 교훈점을 정리하였다.

김성숙(2009)은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의 측면에서 성경적 재물관, 직업관, 부자관, 소비관을 추출 후, ①성경적 재물관은 청지기적 삶, 돈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삶, 자족하는 삶, ②성경적 직업관은 선한 일과 근면 충성, ③성경적 투자관은 투자활동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며 목적을 선한 사업과 나눔, ④성경적 소비관은 타락적 소비를 경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나눔의 생활화를 제시하였다. 박정윤(2011)은 저서『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부자학』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행복한 부자학의 개관, 청지기의 자세와 삶, 재무경영, 헌금과 신용관리, 일과 경력관리, 합리적 소비관리, 주택구매와 자동차 구매, 저축과 투자관리,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나눔설계, 은퇴 및 상속설계 등에 대해 재무관리의 관점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선복(2019)은 성경적 관점의 회계윤리를 정리하였으며, 김태황(2019)은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이주 등이 선교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①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급속한 활성화에 부합하는 기업의 선교 활동 강화, ②세계화의 흐름과 연계시킬 때 인접국가들에 대한 선교 활동의 활성화, ③관·산·학·선의 협동 체제에 의한 패키지형 선교 전략, ④경제활동 주체로서 이주자의 이동을 활용하는 전략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일본 관련 기독교 연구

일본선교 및 기독교 관련 국내 선행연구로는 다음이 발견된다. 사와 마사히코(1995)는 저서 『일본기독교사』를 통해 한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일본 기독교의 사상과 배경, 카톨릭과 개신교에 의한 복음전도, 일본교회에 의한 한국전도, 전시중의 일본 기독교 모습, 일본 신학사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또 책의 부록1에서는「제2차 세계대전하에서의 일본기독교단의 전쟁 책임에 관한 고백(1967)」을, 부록2에서는「일본 기독교단이 대동아공영권의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서한(1944)」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박양자(2008)는 『일본 키리시탄 순교사와 조선인』을 통해 일본에 복음이 전해진 과정과 박해, 추방령, 순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일본내 조선인 키리시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김한식(2017)은 『일본, 복음의 눈으로 다시보다』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의해

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시작으로 이수정의 성경 한글번역 등 일본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들을 사료를 통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김산덕(2019)은 『일본의 정신과 기독교 상』에서 메이지부터 다이쇼 시대까지 일본 개신교의 시작, 기독교 교육전개, 교파 노선, 성경번역과 찬송가, 천황제와 기독교, 우에무라 마사히사와 우찌무라 간조 등에 대해 일본 개혁파교회 목사 오노 시즈오의 저서를 번역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선복(2007)은「일본어를 이용한 대학채플의 개설 가능성과 도입성과」에서 대학에 개설된 일본어채플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본기독교 역사,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을 소개하였다. 동 채플은 2020년 현재 14년째 매학기 진행되고 있다[3].

즉 선행연구는 ①일본의 경제와 ②기독교 관련 경제, ③일본의 기독교 연구,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①은 일본 경제사에서부터 성공의 신화를 쓴 일본형 경영방식, 그리고 버블 붕괴후 상황과 회계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었다. ②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경제성장과 기독교 역할, 재무관리, 투자무역 등에 대해 성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③은 일본의 카톨릭과 개신교 전래과정부터 초기 키리시탄에 대한 핍박과 박해, 천황제 및 국가주의와 관계, 일본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과정이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이 세 유형의 연구를 학문과 신앙(최용준, 2013)의 관점에서 융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즉 ①성경적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4]의 관점에서 한일 거시경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②한일의 경제문제와 ③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교세 현황을 포함, 선교에 대한 함의를 조망해 본다. 특히 국가간의 경제 격차 변화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Ⅲ. 한일 거시경제 통계자료 분석

1. 한일 경제 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는 199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거시경제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변화가 일본선교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자료의 분석 기간은 다음 2개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첫째 1989년까지 일본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린 후 1990년부터 경기가 하락, 버블 붕괴부터 최근까지 경제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1989년에 헤이세이가 천황으로 즉위, 2019년 퇴임까지 30년 기간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통계자료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

3) 위 일본어채플은 2006년에 미션스쿨인 동서대학교 대학정책 과목으로 개설, 2020년 현재 14년째 운영되어 되고 있으며 본 연구자도 진행을 돕고 있다. 참가자는 1-3학년으로, 6학기동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채플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2019-2학기 일본어채플 수강자는 약300명이다. 일본어채플 웹 자료실 http://uni.dongseo.ac.kr/chapel/index.php?pCode=MN1000022

4)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 관점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체계로, 그 기저에는 성경적 신학적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자는 2017년에 재직 대학에 '학문과 신앙'을 개설, 전공이 다른 12명(신학,경제,경영,어문,컴퓨터,기계공학,건축,보건,디자인,음악),의 기독교수들과 특강형식 수업을 7학기 째 참여해 오고 있다. 수업개설까지는 전남대의 '삶과 지적대화' 과목,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의 손봉호교수 및 강영안 교수 기독교 세계관 특강, 최용준의 '학문과신앙(2013)' 등이 참조되었다.

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해당기관의 웹 사이트와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에서 추출하였으며, 양국 지표가 갖는 금액의 크기 및 세계 경제 속 비중을 추가로 음미해 보는 뜻에서 참조로 미국 지표를 반영하였다. 분석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경제흐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7개의 거시경제학 관련 통계자료 지수를 인용하였다.

1)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2) 1인당국민소득(per capita GDP)
3) 경제성장률(rate of economic growth)	4) 수출·수입액(amount of export, amount of imports)
5)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6) 실업률(unemployment rate)
7) 인터넷이용률(Internet utilization rate)	

그리고 자료 분석을 위해 다음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①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의해 한일 간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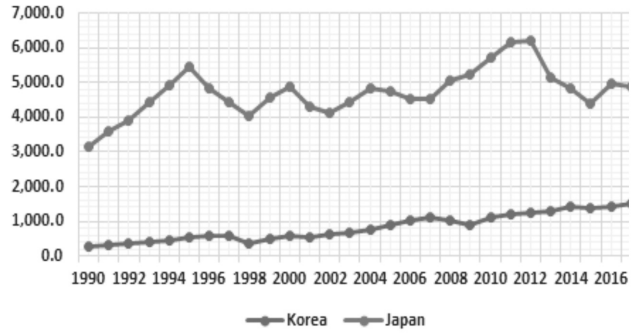
②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의해 한일 간 GDP 격차는 감소하였다.

③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의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한국의 상승률에 비해 낮다.

위 가설의 설정 이유는 버블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과 20년이 상징하듯이 일본경제의 침체와 불황이 거시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과의 격차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동태적 분석과 정태적 분석, 2개를 병행한다. 첫째, 동태적 방법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8년간의 자료를 '그래프' 로 표시해 추세와 개괄적 흐름을 파악한다. 둘째, 정태적 방법은 시작년도와 마지막년도의 통계지수를 '표'로 비교 표시해 금액의 크기와 차이, 상대비율, 전체 평균비율 등을 구해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한 것으로, 1990년 한국의 GDP는 2793억 달러로 일본 3조 1328억 달러의 8.9%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2017년은 1조5302억 달러로 일본 4조8721억 달러의 31.4%을 차지하여 격차가 감소하였다.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2.48배 이상 많으므로 동등한 수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1990년 일본의 8.9%이던 규모가 2017년 31.4%으로 상승, 3분의1에 육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5].특히 일본경제는 한국의 GDP가 낮은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비교해 일본 GDP는 1998년, 2014년 그래프에서 보듯이 변화의 폭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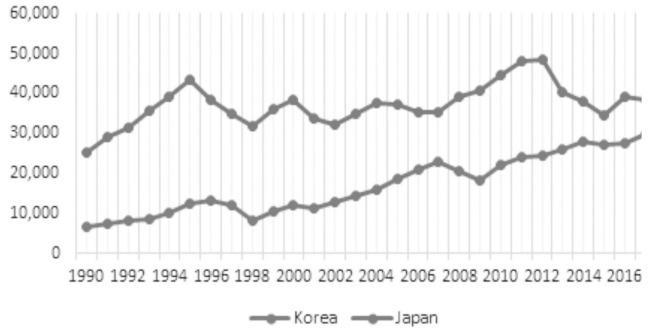
	1990	2017
Korea	279.3	1,530.2
Japan	3,132.8	4,872.1
U S	5,979.6	19,390.6
K/J(%)	8.9	31.4

* 1 billion US$

Figure 1. Gross domestic product (GDP)

(2)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income, PCI)은 GDP를 총국민수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의 국민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1990년 한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6,514달러로 일본 23,359달러의 25.68%였으나, 2017년은 29,744달러로 일본 38,428달러의 77.40%를 차지했다. 1990년 일본의 25.5%에 불과하던 1인당국민소득이 2017년 77.4%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조사기간 동안 4.57배 증가해 향상된 것에 비해, 일본은 1.52배 증가에 멈추었다[6].



	1990	2017
Korea	6,514	29,744
Japan	25,359	38,428
U S	23,954	59,532
K/J(%)	25.7	77.4

* 1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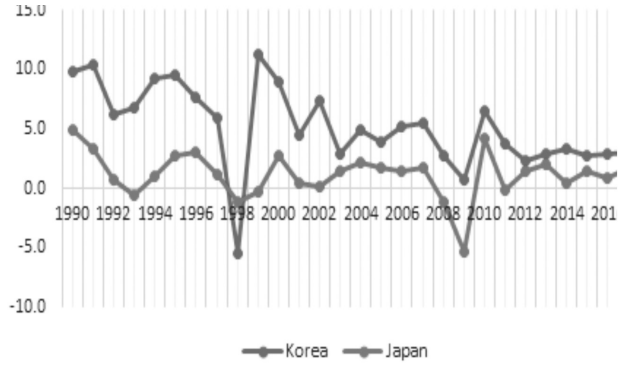
Figure 2. per capita income, PCI

5) 비교기간 동안 한국은 4,287만명에서 5,1145만명으로, 일본은 12,452만명에서 12,748만명으로 증가,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중이 34,4%이 40.4%로 상승하였다. KOSIS 통계(2020) 참조.

6) 한편 한국은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2019년 세계 7번째로 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가 되어 5030 클럽에 합류하였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31577821

(3)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rate of economic growth)은 일정 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즉 1년 동안 창출한 실질GDP가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1990년 한국경제는 9.8% 성장하였고 일본은 4.9% 성장하였으며, 2017년은 한국이 3.1%, 일본이 1.7%로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1990년-2017년 전체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한국이 5.19%, 일본이 1.16%을 기록했다. 즉 일본이 1950-80년대에 고도성장을 한 후 90년대에 성장을 멈춘 것에 비해, 한국은 19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계속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 한국은 1997년 말에 IMF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받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1997년 716조원의 GDP가 1998년에는 677조원으로 감소, -5.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반대로 일본은 2009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해 -5.4% 성장을 나타냈다.



	1990	2017
Korea	9.8	3.1
Japan	4.9	1.7
U S	1.9	2.3
K/J(%)	200.0	182.4

* rate(%)

Figure 3. Rate of economic growth

(4) 수출액과 수입액

수출액(amount of export)은 한 나라가 생산하는 전체 제품 중 해외 수출금액을 말한다. 반대로 수입액(amount of imports)은 외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1990년 한국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일본 2875억 달러의 22.6%이었으나, 2017년 한국의 수출액은 5736억 달러로 일본 6981억 달러의 82.1%를 차지했다. 한국이 8.8배 증가한 것에 비해 일본은 2.4배 증가하였다.

수입액의 경우 1990년 한국 수입액이 698억 달러로 일본 2353억 달러의 29.6%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한국 수입액이 4784억 달러로 일본 6712억 달러의 71.2% 수준에 이르러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한국의 수입액이 6.9배 증가한 것에 비해, 일본은 2.86배 증가하였다. 내수시장이 큰 일본에 비해 시장이 작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1990	2017
Korea	65,016	573,694
Japan	287,580	698,168
U S	393,592	1,546,273
K/J(%)	22.6	82.2

* 1 million US

Figure 4. amount of ex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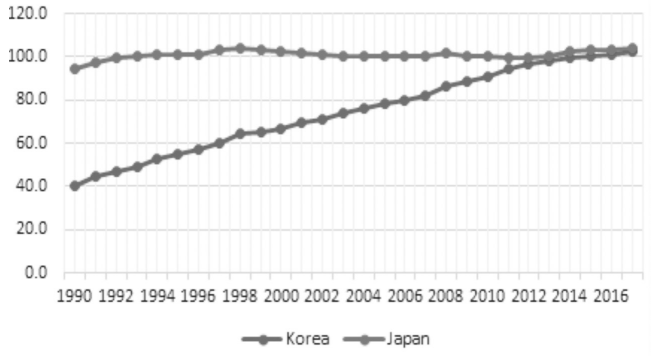
	1990	2017
Korea	69,844	478,478
Japan	235,376	671,258
U S	516,987	2,408,476
K/J(%)	29.7	71.3

* 1 million US

Figure 5. amount of imports

(5)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1990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할 경우 40.6%, 일본은 94.5%를 기록하였고, 2017년은 한국이 102.9%, 일본이 104.0%로 나타났다. 한국이 연평균 5.1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1990년대 이후에도 물가지수가 62.3으로 2.5배 이상 상승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것에 비해, 일본은 1990년 이후 정체현상을 나타냈다. 즉 1960-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과 달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16%로 매우 낮고, 잃어버린 10년과 20년이 상징하듯이 물가지수 상승률은 7.5로 낮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크게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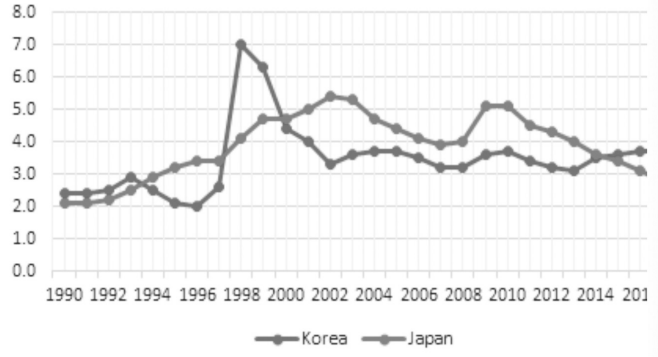
	1990	2017
Korea	40.6	102.9
Japan	94.5	104.0
U S	59.9	112.4
K/J(%)	43.0	98.9

* CPI(2010=100)

Figure 6. consumer price index

(6) 실업률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990년 한국의 실업율은 2.4%이며, 일본은 2.1%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2017년은 IMF 외환위기 당시 7%로 급격히 높아진 것을 제외, 하락 후 3.7%로 실업률이 다소 높아졌다. 그리고 일본은 자연실업률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책 효과 등으로 2.8%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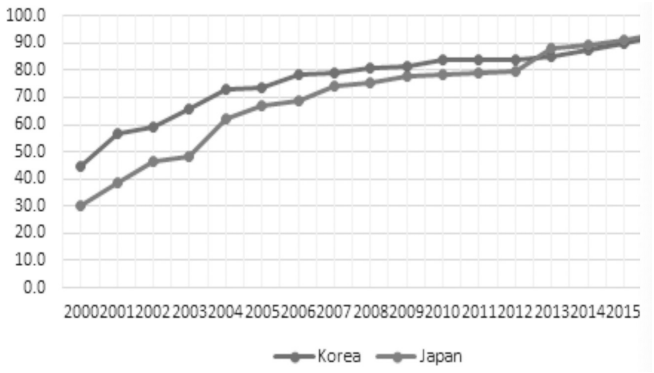


	1990	2017
Korea	2.4	3.7
Japan	2.1	2.8
U S	5.6	4.4
K/J(%)	114.3	132.1

* rate(%)

Figure 7. unemployment rate

(7) 인터넷 이용률



	2000	2017
Korea	44.7	95.1
Japan	30.0	90.9
U S	43.1	-
K/J(%)	149.0	104. 6

* rate(%)

Figure 8. Internet utilization rate

인터넷 이용률(Internet utilization rate)은 1990년 한국이 44.7%, 일본이 30.0%이며, 2017년은 한국이 95.1%, 일본이 90.0%로서 한국이 다소 높은 경향은 나타냈다[7]. 인터넷 이용은 온라인 마케팅 및 핀테크 등금융거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이용률이 높을수록 온라인 거래도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IV.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현황, 선교적 함의

1.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현황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한일 양국의 선교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제언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교세의 현황, 특징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으면 한다. 일본은 1549년 예수회소속 포르투칼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1506-1552)가 규슈에 처음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였다. 1568년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여 초기 순조롭게 복음이 전해졌다. 1613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금교령을 발표하기까지 인구 1천5백만 중 80만명(5.3%)이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부흥하였다. 그러나 그 후 박해가 심해지고 1587년 선교사 추방령이 발표되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 1596년에는 상 필리페호 사건으로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성인이 순교하였다. 1613년에는 토쿠가와(徳川) 막부가 기독교 금지를 결의하고 80만명의 신자들에게 비극이 초래되었다. 1622년에 55명이 나가사키에서 처형당하고 20만-30만명이 순교했다. '금교령'의 탄압에 신자들이 단결

7) 한편 최근에는 양국 모두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 민간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헌(2015), 제4차산업혁명의 미래, 참조

하여 1637년에는 규슈에서 '시마바라(島原)의 난'이 일어났다.[8] 아마쿠사시로(天草四郎)라 하는 16세의 소년을 중심으로 농민과 사무라이 3만7천명의 신자가 모여 1년 이상 12만명의 토쿠가와 막부군대와 싸워 전원 순교하였다. 1639년 토쿠가와 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국교를 단절, 쇄국령을 내리고 30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였다(고노이 五野井, 1990; 사와, 1995:39-73; 이선복,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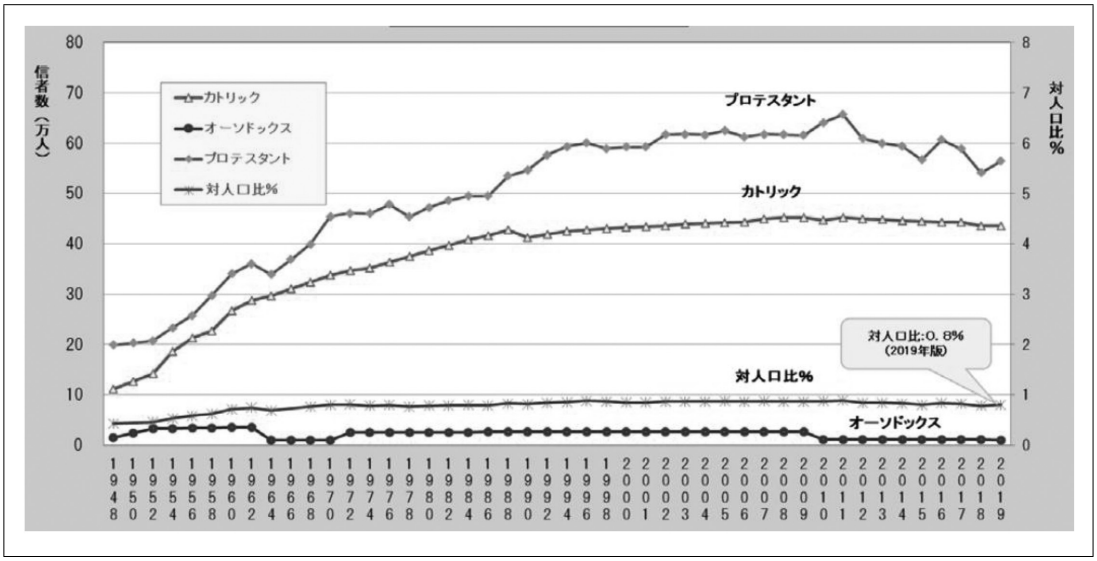


Figure 9. Changes in the Number of Christians in Japan
* Sourc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Mission of the Tokyo Christian University in Japan(2019), p.9

일본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59년으로 미국 감독교회(성공회), 개혁교회(칼뱅파), 장로교회(칼뱅파) 선교사가 나가사키와 가나가와에 상륙하고 외국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1872년 요코하마에 개신교 최초의 일본기독성공회가 설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초기 기독교 금지하는 정책을 하며, 1868년에 기리시탄 사교 출입금지(支丹邪宗門禁制) 팻말을 내걸었으나 국제적 여론에 밀려 1873년에 철거하였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포교가 묵인된 것이다. 루터파는 1892년 미국계 복음루터교회를 조직하였다. 칼뱅파는 개신교에서는 가장 빨리 전도를 시작하여 일본기독공회를 설립, 1877년에 일본장로공회와 연합하여 일본기독일치교회를 설립하고 1890년에 일본기독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회중파는 미국 보드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다 1878년 간사이(関西) 9공회가 일본기독전도회사를 설립하고, 1886년에 일본조합기독교회가 결성되었다. 침례파는 미국의 고블과 브라운이 전도를 시작하고, 1873년 요코하마에 제일침례교회를 설립하였다. 감리교회는 1873년에 미국 감리감독교회와 캐나다 감리교선교교회가 전도를 시작하였으며, 1907년에 일본감리교회가 결성되었

8) 五野井隆史(2006).218-223, 後藤(2011)

다(일본종교연감, 2019:19-22). 그러나 이와 같이 일본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지 이미 오래이고, 교회와 기독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신자 수는 많지 않다. <그림9>와 같이 일본 개신교 신자의 추이는 1948년에 약 20만명에서 2011년에 65만명으로 증가하여 부흥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8년 현재 5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기독교 신자수의 비율이 총인구의 1% 미만이며, 개신교로 한정할 경우 0.4%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일본의 기독교 단체와 신자수, 교단 현황

2018년말 현재 일본의 종교단체, 신자 및 교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교 단체수는 215,570개로 신도계 40.6%, 불교계 39,1% 기독교계 4.0%. 기타계 16.3%의 분포이다<표1>. 기독교 단체의 수가 8,626개로 타종교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신자수는 1억8133만명으로 신도 48.1%, 불교 46.5%, 기타

Table 1 Number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Japan (2018.12.31)

	Religion Group (including religious corporations)					
	shrine	temple	church	propagation	other	Total
Shintoism	80,983	14	5,026	847	627	87,497
Buddhism	26	76,872	1,932	1,749	3,742	84,321
Christianity	-	3	7,102	724	756	8,585
Other Groups	65	41	17,040	16,877	1,144	35,167
Total	81,074	76,930	31,100	20,551	6,269	215,570

* Sources: Japanese Cultural Service, Japanese Religious Almanac, p.34

Table 2 The number of religious teachers and believers in Japan (2018.12.31)

	teacher			believer	Ratio (%)
	male (foreigners)	female (foreigners)	Total (foreigners)		
Shintoism	45,596 (30)	26,102 (39)	71,142 (54)	87,219,808	48.1
Buddhism	165,912 (374)	189,582 (211)	355,886 (591)	84,336,539	46.5
Christianity	26,959(2,259)	4,660 (824)	31,619 (3,324)	1,921,484	1.1
Other Groups	77,113 (158)	123,735 (164)	200,848 (288)	7,851,545	4.3
Total	315,579(2,821)	344,079 (1,248)	659,658 (4,069)	181,329,376	100.0

* Sources: Japanese Cultural Service, Japanese Religious Almanac, p.34

Table 3 The denomination of Christianity in Japan (2017.12.31)

	Church	Teacher	Believer	note
Catholicism	969	1,403	433,813	a teacher is a priest only
Orthodox Church	69	40	9,816	
Protestant	7,427	9,432	555,167	including foreign missionaries
Total	8,465	10,875	998,796	

* Sourc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Mission of the Tokyo Christian University in Japan(2019), p.8

4.3%, 기독교 1.1%순이다(문화청 종교연감, 2019).[9] 기독교 신자수가 1,921,484명으로 1%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카톨릭을 제외할 할 경우 개신교 복음화율은 0.4%(교회수 7,427개, 교역자 9,432명, 신자수 555,167명)로 더욱 낮아진다<표2, 3>.

일본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에큐메니칼계 교회가 2,204개(21.2%)로 가장 많고, 초교파선교단체 11.7%, 침례계 10.8%, 성결계 8.6%, 개혁장로계 7.9%의 순을 보이며 단위조합 및 무교파 무교회도 1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 현재 전년대비 교회회원수의 증감을 보면 에큐메니칼계 교회 -2,695명, 일본 루터교단 -548명, 침례계 -898명, 초교파선교단체 -810명, 단위교회(독립계) -1,486명으로 전반적인 감소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개혁 장로교만이 235명 증가하였다.[10] 즉 개혁 장로교를 제외하고 최근 일본교회의 회원수 및 예배자수가 급감, 성도의 교회이탈 현상이 눈에 띄고, 특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교단이외 교회에서 더욱 감소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4>, (도쿄기독교대학 2019: 12-15).

Table 4 A Protestant denomination in Japan (2017.12.31)

	Church number	Ratio (%)	Number of believers	Ratio (%)	Number of worshipers	Ratio (%)
Ecumenical	2,024	25.3	216,513	36.4	58,278	21.2
Luther	279	3.5	32,768	5.5	7,149	2.6
Reform& Presbyterian	545	6.8	40,913	6.9	21,576	7.9
Baptist	891	11.1	56,532	9.5	29,579	10.8
cross-cultural missionary	866	10.8	44,530	7.5	32,084	11.7
Weslean Horinnes	863	10.8	57,411	9.7	23,593	8.6
Pentecoste charisma	872	10.9	50,054	8.4	38,135	13.9
Other	541	6.8	23,672	4.0	15,440	5.6
Unit unions, no church	1,122	14.0	71,692	12.1	48,526	17.7
Total	8,003	100.0	594,085	100.0	274,360	100,0

* Sourc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Mission of the Tokyo Christian University in Japan(2019), p.11

9) 인구수 1억2000만명에 비해 신자수가 1억8226만명으로 많은 것은 일본의 경우 다신교 형태의 교인이 많아 중복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10) 장로교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민경배(2007), 이상규(2007)를 참조

3. 일본선교에 대한 시사점과 패러다임 변화

(1) 일본선교에 대한 시사점

이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교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특별히 복음화율이 낮은 일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와 기독인이 가져야 할 선교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3장의 통계자료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 한국의 GDP는 2793억 달러로 일본 3조1328억 달러의 8.9%였으나, 2017년은 1조5302억 달러로 일본 4조8721억 달러의 31.4%로 상승하였다. 둘째, 1990년 한국 1인당국민소득은 6,514달러로 일본 23,359달러의 25.68%였으나, 2017년은 29,744달러로 일본 38,428달러의 77.40%를 차지하였다. 셋째, 199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9.8%, 일본은 4.9%이었으며, 2017년은 한국 3.1%, 일본 1.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0년-2017년 전체 연평균 성장률은 한국 5.19%, 일본 1.16%을 기록하였다. 즉 일본이 최근 20년간 성장이 멈춘 것에 비해, 한국은 감소추이 속에서도 상승을 보이며 양국의 격차를 줄였다. 넷째, 1990년 한국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일본 2875억 달러의 22.6%이었으나, 2017년 한국의 수출액은 5736억 달러로 일본 6981억 달러의 82.1%를 차지했다. 수입액의 경우 1990년 한국은 698억 달러로 일본 2353억 달러의 29.6%였으나, 2017년 수입액은 4784억 달러로 일본 6712억 달러의 71.2%에 이르렀다.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990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할 경우 40.6%, 일본은 94.5%를 기록하였고, 2017년은 한국 102.9%, 일본이 104.0%로 나타났다 .한국이 조사대상 기간 중 한국 5.19%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함께 2배의 물가상승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것에 비해, 일본은 이미 성숙단계로 성장률이 1.16%로 낮음은 물론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즉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의해 ① 한일간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와 ② GDP 격차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됨은 물론, ③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한국의 상승률에 비해 낮을 것이란 예상도 통계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는 한국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일본이 하락하여 경제적 격차가 감소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한일 양국은 1965년에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역사를 넘어 국교를 정상화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일경제협회 등 민간 경제계의 노력으로 회담이 성립되고, 일본이 10년에 걸쳐 3억 달러를 한국에 무상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내용의 '한일정부간 재산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니시노, 2015). 이후 한국은 포항종합제철소(POSCO)와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중화학공업 육성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성장을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의 식민통치와 1950년 전쟁 폐허에서 벗어나 2018년 현재 세

계 제12위 GDP 국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11] 즉 한국의 경제발전이 급속도록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경제격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일본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또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2) 일본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면 일본선교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경제통계의 변화를 포함,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일본선교에 임하는 한국교회의 지원이다. 2019년 현재 일본에는 1,656명의 한국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2020). 한국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과거 선교활동의 내용을 본면 재일교포들의 삶의 애환을 대변해 온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사역부터 현지에 소규모 형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또 여러 형태의 문화사역과 봉사가 주를 이루어 왔다.[12]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경제지수 격차가 크게 변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본 생활수준의 4분의 1이었던 한국의 국민소득이 77% 수준으로 상승하고, 한국의 GDP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 되었다. 또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교회의 상당수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 비해 일본은 경제 선진국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도 성과가 미흡할 것이란 생각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엔고현상과 경제지표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며 이제 일본에서도 적절한 재정후원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을 포함, 일본교회와 목회자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는 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고령화 되거나 설교할 목회자가 없는 무목(無牧)교회도 증가하고 있다.[13] 대형교회의 전략적 재정지원은 물론 보내는 개인 선교사의 후원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또 가능하다면 일본인이 운영하는 크리스천 기업 및 경영자와의 협력을 모색하여 병원, 학교, IT,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4차 산업에 대한 선교적 기업 도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14]

11) 한국은 1953년 GDP가 19조원으로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최빈국가에서 1980년 163조원, 1990년 419조원, 2000년 820조원, 2010년 1265조원, 2018년 1597조원의 국가로 84배나 성장하였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일본에 이어 1988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OECD에 가맹하는 국가가 되었다.

12) 2017년말 현재 일본에는 98개 재일대한기독교회(교인수 6,400명, 예배자수 4,300명)가 있다. 또 일본선교의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주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일본 전역에, 온누리교회는 러브 소나타를 통해,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동경요한교회는 CCC(대학생선교회) 순모임 방식을 통해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이선복,2007). 또 일본 선교사 파송을 위해 일본복음선교회 등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통일교에 이어 이단으로 불려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까지 교회 이름으로 진출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신천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1

13) 일본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는 단체로 예를 들면 호도스신학원(http://www.hodos.or.kr), 일본복음선교회(http://kjem.com)가 있다.

14) 예를 들어 일본에는 (주)시온 (http://www.zion1960.co.jp/about-us/) 및 백양사와 같은 크리스천 기업이 있다. 또 이미 고인이 된 경우도 있으나 井深大(ソニー創業者), 小倉昌男(元ヤマト運輸会長), 池田守男(資生堂元社長), 森泰吉郎(森ビル創業者), 松本望(パイオニア創業者), 小林富次郎(ライオン創業者)와 같은 신실한 크리스천 경영자가 있다(https://note.com/joel316/n/n96f16c0661b6).

둘째는 선교 협력을 받아들이는 일본교회의 이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1945년 패전이후 1989년까지 일본경제는 놀랍게 성장을 하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 제2위 GDP국가가 되고, 각종 경제신화를 바탕으로 Japan as No.1이라는 캐치 프레이어 자부심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러한 자부심이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들어가고 아시아 선교사들이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일본인의 눈에는 경제 선진국 국민으로서 우월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 엔도 슈사쿠의 작품, 침묵(沈黙)에서처럼 일본은 초기 선교사들이 전하려 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신에 대한 개념을 넘어, 오랜 박해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변형된 모습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종교개혁 이후의 바른 신앙과 체계적인 성경연구,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교리에 기초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한일 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영성을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성공의 확신을 갖고 협력해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목적에 따라 보냄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 가운데 친교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다(아광순、이용원, 2000).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다(고전 12:3).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고전3:16),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기도 하다(Desmond, 2000:575).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함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Donald, 1987:31).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요구하는 한국과 일본이란 국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다.

(3) 일본선교를 위한 추가적 조언

본 연구자는 일본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15] 일본을 복음화 할 수 있는 나라 중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선교를 위해 추가적으로 이해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본 연구는 경제 통계분석 결과와 직접 상관관계는 없으나,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나 단체 등을 돕는 의미에서 다음 3개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일본선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1549년에 카톨릭 예수회소속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메이지정부 근대화 과정인 1859년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의 심한 박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메이지 이후에도 천황제를 중심으로 신도와 집단성향을 중시히는 국가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에서처럼 일본인은 온유와 강팍, 양면의 성격을 갖고 있다(Ruth Benedict, 1946). 세례와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15)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현황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개신교)인구는 967만명으로 전체의 19%으로 많은 기독교인 존재하며, 세계 주요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않는 것처럼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또한 이는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어 일본교적 기독교로 변형되어 일본화 된 부분이 적지 않다(사와, 1995:9). 따라서 일본인에게 빨리 믿을 것을 강요하거나,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천황제에 대해 깊은 성찰 없이 비판적 자세를 갖는 것은 전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본적 사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토양을 존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일본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교회 교단은 개혁/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를 포함, 에큐메니컬 성향이 강하다. 또한 한국교회의 원형이 농촌교회라 할 수 있다면 일본교회는 대도시의 학생, 중산층, 지식인 그룹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교회 개개의 교세가 매우 작은 상황이다. 일본 '크리스천 정보북 2018'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일본전국 개신교 교회 수는 7,896개(전년대비 14개 감소)로 1교회당 평균 회원수는 62.4명(0.2%감소), 평균 예배자수는 39.2명(0.2%감소)이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형교회는 거의 없고, 작은 형태의 교회가 많다. 교회가 증가한 지역은 홋카이도 2개, 중국·시코쿠 2개 2지역이고, 감소한 곳은 관동 12개, 중부 3개, 큐슈·오키나와 2개, 킨키 1개 지역에서 각각 감소했다. 또한 현(県)별로 평균 교회 회원 수를 보면 도쿄 110.3명. 카나가와현 87.9명, 오사카부 80.5명 등 대도시 중심부가 많고, 후쿠시마현 31.0명, 이와테현 31.1명, 아오모리현 31.5명으로 시골로 갈수록 인원이 감소한다. 평균 예배자수는 도쿄도가 64.5명으로 가장 많고, 시마네현이 16.0명으로 가장 적다. 즉 운영자체도 어려운 미자립교회가 많은 상황이며, 또 이러한 교회의 영세성이 목회자의 부재에 따른 무목(無牧)교회 증가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크리스천신문, 2018). 즉 일본교회를 돕거나 지원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교회의 예배 흐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단 교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교회는 절제적이고 조용한 편이다. 한국과 같이 새벽기도가 활발하지 않으며, 큰소리로 아멘을 외치거나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예배 찬양대의 음률은 고도로 절제된 화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강단 설교는 예화가 적고 성서적 관점의 강해가 많다(고우토 後藤, 2011; 일본복음선교회, 2020). 일견에서는 구약보다 신약성서 중심의 설교가 많음을 지적하는 논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 특유의 문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타인에 대해 배려를 하고, 폐(메이와쿠, 迷惑)를 끼치는 것을 실례로 여기는 문화가 초등교육 시절부터 가르쳐지고, 이것이 예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렇다고 일본의 신학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메이지 시대 복음이 전해진 이후, 에비나다 단조가 1901년에 자유와 자연, 체험주의에 기초해 기록교론을 전개한 것을 시작으로, 우에무라 마사히사는 1884년에 『진리일반』을 써서 유물론과 진화 사상을 비판하고 기독교의 변증을 했다. 또 하다노 시츠이지는 1907년에 『기독교의 구원』, 다카구라 도쿠다로는 1937년에 『복음적 기독교』, 구마노 요시다카는 1933년 『종말론과 역사철학』에 이어 『기독교 개론』(1947), 『기독교의 본질』(1949), 『교의학 I 』(1954)을 저술하였다. 또 기다모리 기쇼는 1946년에 『신의 아픔 신학』을 저술하여 영

어와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우치무라 간조 같은 기독교 사상가를 배출하기도 하였다(사와, 1995:166-176). 최 인접국 일본에 대해 복음주의 관점에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되, 방법에서는 오히려 일본교회와 신학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갖고 선교 행전의 이루어 가자는 의미이다.

V. 결 론

이상, 본 연구는 199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OECD가 제공한 28년간의 한일 경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일본선교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 일본의 8.9% 였던 한국의 GDP가 2017년은 31.4%로 상승하고, 25.68%이었던 1인당국민소득은 77.40%으로 양국의 격차가 감소하였다. 연평균 성장률도 조사기간 동안 한국 5.19%, 일본 1.16%을 기록하여 일본의 성장이 둔화된 것에 비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함을 보였다. 수출은 일본의 22.6%에서 82.1%, 수입은 29.6%에서 71.2%로 격차가 감소하였다.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1990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할 경우 40.6%, 일본은 94.5%를 기록하였고, 2017년은 한국 102.9%, 일본이 104.0%로 나타났다. 즉 한국이 조사대상기간 중 한국 5.19%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함께 2배의 물가상승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것에 비해, 일본은 이미 성숙단계로 성장률이 1.16%로 낮음은 물론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즉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의해 ① 한일간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와 ② GDP 격차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③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한국의 상승률에 비해 낮을 것이란 예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격차가 감소한 분석결과를 포함, 일본 기독교의 역사와 교세현황을 검토 후, 다음 5개의 선교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일본교회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한일 경제격차가 감소된 만큼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교회를 돕되 재정적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고 제자훈련과 같은 간접방법으로 목회자와 신학생을 후원하고, 크리스천 기업 및 CEO와 협력해 학교, 병원, AI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 형태의 선교적 기업 형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교 협력을 받아들이는 일본교회의 자세로서 과거 일본경제 호황 시 누리던 Japan as No.1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신앙과 성서적 관점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일본의 기독교는 신도와 천황제, 집단성향의 특성이 강함으로 조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재촉하는 것보다 일본의 토양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교활동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본교회는

에큐메니컬 성향이 강하며 교세는 작되 중산층 지식인이 많으므로 상황을 고려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본의 예배 흐름은 새벽기도나 통성기도에 익숙지 않고, 고도의 절제된 분위기와 찬양 음률 속에 예배가 진행된다. 또한 예화보다 성서중심의 설교가 많고, 메이지 초기부터 에비나다 단조, 우에무라 마사히사, 우치무라 간조 등과 같은 신학자나 사상가가 다수 있음을 주지하며, 선교에 대한 뜨거운 비전을 갖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와 기독교 관련 경제관, 또 일본 기독교라는 3개의 카테고리를 학문과 신앙의 관점에서 융합해, 한국과 일본의 최근 28년에 걸친 경제 통계자료를 분석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28년은 헤이세이 30년 일본경제에 대한 평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관한 문헌적 고찰은 물론, 일본 현지 교회, 목회자와의 교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금후의 선교활동과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한계도 많다. 문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일본에 축적되어 있는 전체 신학적 내용이나 교회 상황과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 과정 중에 일본의 크리스천 기업과 CEO 발견은 앞으로 본 연구가 일본선교에 대한 주제를 확장해 가는데 내용을 더욱 흥미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갈 예정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과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고승희 (2000). 일본에 있어서 근대회계제도의 기원. **한일경상논집**, 20, 1-22.

[Ko, S. H. (2000). The Origin of the Modern Accounting System in Japan.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20, 1-22.]

김산덕 (2019). **일본의 정신과 기독교(상)**. 하영인.

[Kim, S. D. (2019). *Japan's spirit and Christianity (sang).* Ha Young In.]

김성숙 (2009).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를 위한 경제교육내용 개발. **신앙과학문**, 14(1), 9-54.

[Kim, S. S. (2009). A Study on the Economic Education Contents of Biblical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Faith & Scholarship*, 14(1), 9-54.]

김승욱 (2010). 기독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초기 인적자본형성을 중심으로. **신앙과학문**, 15(3), 7-45.

[Kim, S. W.(2010). The Impact of the Christianity on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Faith & Scholarship*, 15(3) and 7-45.]

김영래 (1997). 일본형 경영의 형성과 구조. **한일경상논집**, 14, 21-48.

[Kim, Y. R.(1997). Formation and Structure of Japanese-style Management.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14, 21-48.]

김태황 (2019).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이주 추이 고찰과 선교 전략 방향 탐색. **신앙과학문**, 13(3), 87-113.]

[Kim, T. H.(2019). A Proposal of Miss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Flows of International Trade, FDI and International Migration. *Faith & Scholarship*, 13(3), 87-113.]

김한식 (2017). **일본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다 -일본은 한국에게 니느웨인가**, 크리스챤 서적.

[Kim, H. S. (2017). *Read again with the eyes of the Japanese gospel - Is Japan Nineveh to Korea*, Christian books.]

니시노 준야 (2015).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일본비평**, 12, 50-71.

[Nishino, J. Y. (2015).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Japan Criticism*, 12, 50-71.]

박양자 (2008). **일본 키리시탄 순교사와 조선인**. 도서출판 순교의 맥.

[Park, Y. J. (2008). *Japanese Kirishitan Martyrs and Koreans*. the pen of martyrdom in book publishing.]

배준호 (2007). 국내 일본 경제·경영 연구 동향과 전망. **한일경상논집**, 38, 85-122.

[Bae, J. H. (2007). Trends and Prospects in Research on Economy and Management in Japan in Korea.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38, 85-122.]

사와 마사히코 (1995). **일본 기독교사**, 대한기독교서회

[Sawah, M. (1995). *Christian History of Japan*, Korean Christian Council.]

송지영 (1999). 일본의 경제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18, 45-71.

[Song. J. Y. (1999). A Study on the Stability of Japan's Economic Crisis and Financial System,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18, 45-71.]

신장철 (2009). 일본적 경영 및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44, 35-58

[Sin, J .C. (2009). A Study on the Change of Japanese Management and Employment System,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44, 35-58.]

양성국 (2004). 한국과 일본의 부실은행 처리방식의 비교. **한일경상논집**, 24, 129-156.

[Yang, S. K. (2004).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Dealing Methods of Bankruptcy in Korea and Japan.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24, 129-156.]

이광순·이용원 (2000). **선교학개론**. 한국장로교출판사.

[Lee, K. S, Lee Y. W. (2000). *Missionary Introduction*. Korea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이선복 (2007). 일본어를 이용한 대학채플의 개설가능성과 도입성과. **일본문화연구**, 21.149-165.

[Lee, S. B. (2007). A Case Study on Chapel in Japanese - Based on experiences and survey responses at D University in Busan. *Japanese Culture Research*, 21.149-165.]

이선복 (2010). 일본식 회계모델의 구축과 패러다임 변화. **한일경상논집**, 49, 41-70.

[Lee, S. B. (2010). The Paradigm Shift of the Japanese Style of Accounting Model.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49, 41-70.]

이선복 (2019). 성경적 관점에서 본 회계윤리. **로고스경영연구**, 17(1), 1-20.

[Lee, S. B. (2019). A Study on Accounting Ethics from Biblical Perspective. *Logos Management Review*, 17(1), 1-20.]

이유광 (1990). 일본상인의 형성과 그 유형. **삼성경제연구소**.

[Lee, Y. G. (1990). The Formation and Type of Japanese Merchant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이유광 (2001).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Lee, Y. G. (2001), Lost 10 Years: Lessons from Japan,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차일근 (2008). 일본 기업집단의 주식상호보유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39, 27-59.

[Cha, I. G. (2008).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a Change of Mutual Stocks holding in Japanese Business Groups. *The Korean-Japanese of Economic & Management Studies*, 39, 27-59.]

최종서 (2004).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한 한국과 일본의 회계제도개혁의 성과에 대한 비교연구. **회계저널**, 13(1), 73-111.

[Choi, J. S. (2004). A comparative study of the achievements of Korea and Japan's accounting system reforms before an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ccounting Journal*, 13(1), 73-111.]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9).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 일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9). *2019 Strategies to enter the global market I Japan*. KOTRA.]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KWMA**.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2019). Korea's Missionary Dispatch Situation. *KWMA*.]

황봉환 (2015). **삶의 연결 통로 신학과 경제**, 하람커뮤니케이션.

[Hwang, B. H. (2015). *Connectivity channels of life: Theology and Economics*, Haram Communication.]

황의서 (2014).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경제윤리 비교. **신앙과학문**. 19(1). 183-211.

[Hwang. U. S. (2014). The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 Ethics by Augustine and Aquinas. *Faith & Scholarship*, 183-211.]

<번역서>

김경환·김종석 역.(2016). **맨큐의 경제학**, N.Gregory Mankiw(2015). *Principles of Economics*, 서울: CENGAGR Learning.

Kim, K.H, Kim. J. S. (2016). ManQ's Economics, Seoul: CENGAGR Learning. Trans. N. Gregory Mankiw (2015). *Principle of Economics*.

김윤식·오인석 역.(2005). **국화와 칼**. Ruth Benedict(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서울: 을유문화사.

Kim, Y. S., Oh, I. S. (2005).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Seoul: Eulyu Cultural Inc., Trans. Ruth Benedict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위거찬 역.(1990). **기독교 변증학**, Norman Geisler.(1990). *Christian Apologeticw*, 서울: 성광문화사.

Wi, G. C.(1990). *Christian Apologeticw*, Seoul: Sung Kwang Publishing Co, Trans, Norman Geisler (1990). *Christian Apologeticw*, Baker Book House

최용준 역.(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Robert A. Harris.(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Choi, Yo. J. (2013).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Seoul: Yeyoung Communication. Trans, Robert A. Harris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한국기독학생회(2004). **IVP 성경신학사전**, T. Desmond Alexander(2000).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서울: Korea Inter Varsity Press

The Korean Christian Students Association (2004). IVP Bible Theological Dictionary, Seoul: Korea Inter Varsity Press, Trans, T. Desmond Alexander (2000).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역.(1987). **교회성장의 이해**, Donald A. McGavran.(1987). *Understanding Church Growth*, Tr. Korean Evangelical Mussiologicak Society Translators,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Korean Evangelical Mussiologicak Society (1987). Understanding Church Growth, Seoul: Korea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Donald A. Trans, McGavran (1987). *Understanding Church Growth*,

<해외문헌>

五野井隆史 (2017). **日本キリスト教史**. 吉川弘文館.

[Konoi. Takashi. (2017). *Japanese Christian history*, Yoshikawa Hirobumi.]

小川一夫 (2009). **失われた10年の真実**. 東京経済新報社.

[Ogawa. Kazuo. (2009). *The truth of the lost decade*, Tokyo Economic Literature Co., Ltd.]

後藤牧人 (2011). **日本宣教論**. イーグレース(CHRISTIAN TODAY コラム　第1~115回.
(https://www.christiantoday.co.jp/articles/17984/20151205/nihon-senkyo-ron-1.htm)

[Goto. Ranch. (2011). *Missionary of Japan*: E-Grace (Christian TODAY Column 11~115).]

島和重 (2007). **戦後日本の会計制度形成と展開**. 同文舘.

[Kazushige. Shima. (2007).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ost-War Accounting System in Japan*, Dobunkan.]

文化庁 (2019). **宗教年鑑**. 文化庁.

[Japan Culture Agency. (2019). *Religion Yearbook*, Japan Culture Agency.]

東京基督教大学　国際宣教センター (2019). 日本宣教リサーチ 調査レポート(2018年度).

[Tokyo Christian University International Missionary Center. (2019). *Japan Missionary Research Report* 2018.]

古峰隆夫·村田啓子 (2016). **日本経済入門**. 日本評論社.

[Komine. Takao, Murata Keiko. (2016). *Introduction to the Japanese Economy*, Japan Criticism.]

宮本又郎·安部武司·宇田川勝·沢井実·橘川武郎 (1995). **日本経営史ー日本型企業経営の発展、江戸から平成へ**. 有斐閣

[Miyamoto. Mataro, Abe. Takesi, Utagawa. Masaru, Sawai. Mnorui, Kakawa. Takero. (1995). *The history of Japanese business: the development of Japanese corporate management, from Edo to Heisei*. Yuhaikaku.]

山地秀俊·鈴木一水·梶原晃·山本祥尚 (1994). **日本的企業会計の形成過程**.. 中央経済社

[Hidetoshi. Yamachi, Kazumi. Suzuki, Kaiwara. Akira, Yamamoto. Yosinao. (1994) *Formation process of Japanese corporate accounting*. Central Economic Company.]

KOTRA, National Regional Information : Japan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51(2020.5.1)

Dongseo University Japanese Chapel
http://uni.dongseo.ac.kr/chapel/index.php?pCode=MN1000022(2020.5.1)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SIS), Korea-Japan Economic Statistics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1_01&vwcd=MT
_RTITLE&parmTabId=M_02_01_0(2020.3.1)

Japan Evangelical Mission: JEM(2020.5.1) http://kjem.com

Japan Christian Information Book, https://クリスチャン新聞.com/?p=18159(2020.3.1)

Japan Sion Inc. http://www.zion1960.co.jp/about-us/(2020.5.1.)

Japanese Christian CEO, Ten people https://note.com/joel316/n/n96f16c0661b6(2020.5.1)

Korean Missionary Newspaper, https://missionews.co.kr/news/581786(2020.5.1)

Hodos Theological Institute, http://www.hodos.or.kr (2020.5.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ttps://stats.oecd.
org(2020.4.20)

한일의 거시경제 변화와 선교적 함의 고찰

A Study on the Missionary Implications of Korea-Japan Macroeconomic Changes

이 선 복 (동서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OECD가 제공한 28년간의 한일 거시경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들 변화가 일본선교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일본은 1549년에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복음을 전하고, 1859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 개신교 교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수는 현재 55만명, 인구의 0.4%로 소수이다. 본 연구는 1990년에 일본의 8.9%이었던 한국 GDP가 2017년에 31.4%로 상승하고, 25.68%이었던 1인당국민소득이 77.40%로 상승하여 격차가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또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조사기간 동안 한국이 5.19% 상승한 것에 비해 일본은 1.16%이었음을 검증하였다. 또 수출은 22.6%에서 82.1%, 수입은 29.6%에서 71.2%로 양국 격차가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교의 관점에서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의해 ①한일간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와 ②GDP 격차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③일본의 물가상승률이 한국의 상승률에 비해 낮을 것이란 예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격차가 감소한 분석결과를 포함, 일본 기독교 역사와 교세 등을 검토 후, 다음 5개의 선교적 의미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일본교회에 대한 선교 지원방법으로, 한일 경제격차가 감소된 만큼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자와 신학생, 무목교회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 학교, 병원,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형태의 선교적 기업형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교 협력을 받아들이는 일본교회의 자세로서 과거 일본경제 호황 시 누리던 Japan as No.1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신앙과 성서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의 기독교는 신도와 천황제, 집단성향의 특성이 강함으로 조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재촉하는 것보다 일본의 토양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교활동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본교회는 에큐메니컬 성향이 강하며 교세는 작되 중산층 지식인이 많으므로 상황을 고려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본의 예배 흐름은 새벽기도나 통성기도에 익숙지 않고, 고도의 절제된 분위기와 찬양 음률속에 예배가 진행된다. 또한 예화보다 성서중심의 설교가 많고, 메이지 초기부터 에비나다 단조, 우에무라 마사히사, 우치무라 간조 등과 같은 신학자나 사상가가 다수 있음을 주지하며, 선교에 대한 뜨거운 비전을 갖되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전도를 위해 나아감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 일본, 거시경제, 통계자료, 선교적 함의